국외출장 결과보고

방통위 스페인 · 체코 출장 결과

- 스페인 · 체코 방송통신 협력 강화 및 MWC 2016 참석 -

◆ 기　　간 : 2016. 2. 21(일) ~ 2. 26(금), 4박 6일

◆ 방문국가 : 스페인(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체코(프라하)

2016. 3.

방송통신위원회

목 차

Ⅰ. 출장 개요 ····· 5

Ⅱ. 세부 활동 ····· 6

1. 스페인 Mediaset 방문 ····· 6
2. 스페인 정보보호청(AEPD) 방문 ····· 10
3. MWC 2016 참관 ····· 16
   1) 개요 ····· 16
   2) 주요 참관내용 ····· 19
   3) 현지 언론 인터뷰 ····· 21
   4) 중국 화웨이 면담 ····· 22
   5)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 면담 ····· 25
4. 체코 통신위원회(CTU) 방문 및 MoU 체결 ····· 26
5. 체코 TV Nova 방문 ····· 31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34

1. 시사점 ····· 34
2. 특이사항 ····· 35

Ⅳ. 첨부자료 ····· 36

1. 출장 동정 보도자료(2.21) ····· 36
2. MWC 참관 보도자료(2.24) ····· 37
3. 스페인·체코 정부 간 협력 보도자료(2.25) ····· 40
4. 주요 언론보도 현황 ····· 43
5. 공무국외여행계획서 ····· 51

Ⅰ. 출장 개요

1. 출장 목적

o (정부 간 협력) 스페인·체코 등 방송통신 분야 규제기관과 정책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여 해당국과의 방송통신 민·관 교류 활성화에 기여

o (MWC 참관) 수집된 산업정보 및 관계자 의견을 정책수립 과정에 반영하여 관련 산업진흥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정시장 환경 조성

2. 출장 국가 : 스페인(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체코(프라하)

3. 출장 기간 : 2월 21일(일) - 2월 26일(금), 4박 6일

4. 출 장 자

구분	부 서	직 위(직 급)	성 명	비 고
1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김 재 홍	
2	통신시장조사과	행정사무관	윤 웅 현	
3	운영지원과	비서관(행정사무관)	김 성 환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임준옥 연구원, 김지은 한-영 통역사(바르셀로나 한정) 수행

5. 주요 활동

o 스페인·체코의 방송통신 주무부처 및 주요방송사를 방문하여 MoU 체결(체코 통신위원회) 등 양국 간 협력 활성화 방안 논의

o 국제 이동통신 분야의 최신 동향을 파악, 국내 참가기업 관계자 격려 및 해외 글로벌 기업 주요 임원과 업계 간 국제협력 관련 의견교환

Ⅱ. 세부 활동

스페인 Mediaset 방문

□ 일시 /장소 : ‘16. 2.22(월) 10:00~11:30, Mediaset 회의실

□ 참석자 : 방통위 대표단, Mario Rodriguez Valderas Mediaset 대표 등

< 스페인 Mediaset 개요 >

o 연 혁

- 현재 6개의 지상파 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스페인 최대의 민영방송 그룹
- <안테나 3>에 이어 두 번째로 설립된 지상파 민영방송으로 1990년 4월 3일에 Tele5로 개국하여 현재 Telecinco로 정착
- 지상파 주요 민영 방송사인 Telecinco와 Cuatro의 합병으로 ’09년 Telecinco의 모그룹인 Mediaset Espana가 탄생

o 채널

- 2개 종합채널(Telecinco, Cuatro), 4개 전문채널(FDF, Boing, Divinity, Energy) 등 총 6개 채널 운영
- 스페인 내 가장 시청률이 높은 채널(’14년 기준 평균 시청률 14.5%)로서 전 연령대 대상의 다양한 영화,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방영

o 주요내용 요약

- 스마트 미디어 환경하에서의 방송산업 동향, 지상파 방송 운영 및 정부 규제 현황, MMS·UHD 등 기술도입 방향 및 한류 콘텐츠 교류 방안 등을 논의

□ 세부 면담내용

【Mediaset 및 스페인 방송산업 현황】

o (Midiaset) Telecinco 채널의 방송광고 수익률은 '11년도부터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며, '15년도 기준 Mediaset의 시청률은 스페인 Atres Media, TVE, Resto TTv사와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음

- 스페인 광고시장의 50.1%를 방송사가 차지하고 있으며 신문사 15.7%, 인터넷 매체 10.1%임

< 스페인 매체별 광고시장 현황 >

Medios Convencionales
Inversión Publicitaria (Millones de Euros)
INFOADEX

	Enero – Septiembre			
	Inversión 2015	Evolución ´15 vs´14	Cuota'15	Dif. Ptos Cuota ´15 vs´14
Medios Convencionales	2.843,3	+6,4%	100%	-
Total Televisión	**1.424,3**	**+8,0%**	**50,1%**	**0,7**
Cine	13,9	+51,8%	0,5%	0,1
Diarios	445,7	+0,8%	15,7%	-0,9
Exterior	202,3	+4,5%	7,1%	-0,1
Internet (sólo formatos gráficos)	287,3	+11,3%	10,1%	0,4
Radio	264,5	+7,0%	9,3%	0,1
Revistas	181,6	+1,1%	6,4%	-0,3
Suplementos y Dom.	23,9	+1,2%	0,8%	-

Fuente: Infoadex. Medios convencionales: Televisión, Prensa escrita (diarios ,dominicales y revistas), Radio, Cine, Exterior e Internet (sólo formatos gráficos
Total Televisión: Nacionales, Autonómicas y Tv Pago.

- 스페인에서 위성, 케이블 등 유료방송은 다수의 채널을 운용하며 지상파 방송은 시청료 이외에 이용요금을 받고 유료방송으로 재전송되지 않아 지상파와 유료 방송사 간 재송신 및 이용대가 산정 등으로 인한 분쟁은 발생하지 않고 있음

【방송 공영성 관련 정책】

o (방송규제) 방송통신정책은 산업에너지관광부에서 총괄하며, 방송심의는 방송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음

※ 방송심의위원회는 당 추천을 받은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됨

- Telecinco는 민영 지상파 방송으로서 상업적 수익 창출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으며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키고 있음

< 스페인 Mediaset 면담 사진 >

- 다만, 청소년 보호 등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심의기구를 운영하여 공익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함

【방송기술 개발 동향】

o **(Midiaset)** Mediaset은 다수의 지상파 채널을 허가 받아 운영하며, 해당 채널을 케이블·위성·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송출하고 있음

< Mediaset Espana 채널 현황 >

편성	로고	채널명	개요
종합 채널		Telecinco	● 1990년 방영을 시작한 종합 채널 ● 영화, 스포츠, 리얼리티 쇼, 드라마 등 폭넓은 시청자 층 대상 ● 2009년 연평균 시청률 15.1%로 2위 기록
		Cuatro	● 2005년 방영 시작한 PRISA 산하 지상파 채널 ● 국내외 축구 시합 중계로 시청률 상승 성공 ● 2009년 12월 Telecinco에 인수 결정 ● 동일한 브랜드의 라디오 방송 채널 운영
테마 채널		FDF	● 2008년 2월, 종래의 Telecinco Estrellas 채널을 대체 ● 영화, 드라마 등 픽션 콘텐츠 중심 편성 ● 2014년 5월 지상파 프로그램 송출 종료
		Boing	● 2010년 방영 시작한 어린이 채널
		Divinity	● 2010년 방영 시작한 드라마, 라이프스타일 등 여성 시청자를 겨냥한 프로그램
		Energy	● 남성 전용 채널, 스포츠, 외국시리즈, 액션영화

출처: Telecin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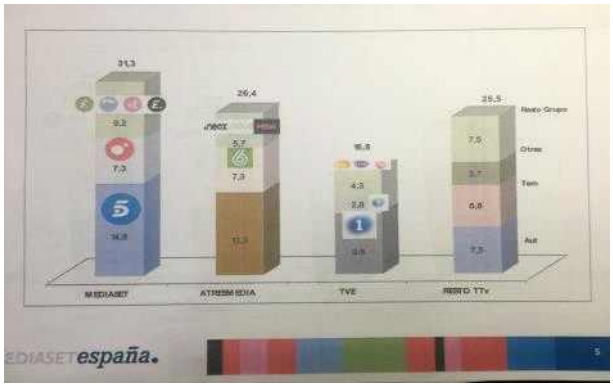
- 스페인은 한 방송 사업자가 다수의 TV 채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다채널방송서비스(MMS)와 같은 기술의 도입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TV의 경우 디지털로 전환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모바일 서비스 등의 보급으로 새로운 활로 모색이 필요하나 아직까지 UHD TV 도입 등에 대한 이슈는 제기되지 않고 있는 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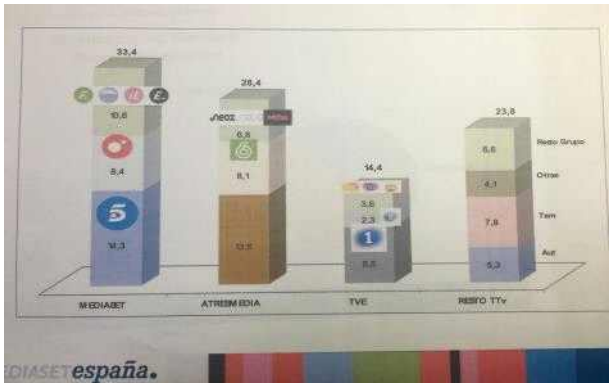
※ 한국의 경우, 700MHz 주파수 대역을 활용하여 UHD TV 방송서비스 구축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임을 설명

- 주파수는 과거 방송을 중심으로 배정되었으나, 최근에는 통신을 중심으로 배정되고 있는 추세

<스페인 방송사업자 점유율 현황>



방송사 시청률



방송사 광고점유율

【양국 방송 콘텐츠 분야 협력】

o **(방통위)** 한국 방송 콘텐츠는 아시아 지역에서 '한류'라는 신조어를 만들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으며 아시아 방송시장 판도를 주도하고 있음

- 최근에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중남미권 국가에도 K-POP 등 한류 콘텐츠 열풍이 있을 정도임

- 한국과 스페인이 방송 분야에서 돈독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 양국 방송 콘텐츠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바라며,

- 한국의 ICT 및 방송 관련 기술이 세계 최고인 점을 감안하여 스마트 환경에서의 방송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교류도 Mediaset에 큰 도움이 될 것임

스페인 정보보호청(AEPD) 방문

□ 일시 /장소 : ‘16. 2.22(월) 12:00~13:30, AEPD 회의실

□ 참석자 : 방통위 대표단, Mar Espana Marti 청장 등

< 스페인 정보보호청(AEPD) 개요 >

o **설립**
- ’92년에 설립하여 ’94년부터 운영된 스페인 정보보호청(AEPD, Spanish Agency of Data Protection)은 스페인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련 규제를 담당하는 독립적인 국가 기관

o **주요 업무**
- 정보의 흐름에 대한 인식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사이버 범죄 신고 접수, 정보보호 감사 및 제재 절차, 인터넷 상 개인 정보, 동영상 등 모니터링 실시

o **권한**
- 스페인의 개인정보보호법(LOPD) 위반 시, 제재 조치의 수립 및 시행 권한을 정보보호청이 행사
- 법령의 위반 정도에 따라 ‘경미 → 심각 → 매우 심각’ 세 단계로 분류하여 최저 600유로(약 78만 원)에서 최대 60만 유로(약 7억 8천만 원)에 이르는 벌금형 부과

o **청장**
- 스페인 자문위원회 위원 중 선출되며, 법무부 장관의 시행령에 따라 임기가 정해짐

o **자문위원회**
- 청장의 자문기관으로, AEPD 청장의 소집에 의해 최소 6개월에 한 번은 이사회가 소집됨(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 자문위는 공식행정기관과 같은 관리법 적용을 받음)

o 주요내용 요약

- 스페인 정보보호청장과의 직접 면담을 통해 양국 간 개인정보보호, 빅데이터 및 위치정보산업 육성 등에 대해 논의하고 양국 간 정책 협력 등을 위한 MoU 체결 제안
- 특히, 한국의 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 신청 시 스페인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냄

□ 세부 면담내용

【양국 정부조직 및 기능】

o **(방통위)** 한국 방통위는 온라인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등을 관리 · 감독하는 기구이며, 인터넷 등 온라인을 벗어난 개인정보보호 이슈는 별도 행정기구에서 관리하고 있음

- 즉, 방통위는 온라인 디지털 산업을 기반으로 한 개인정보가 적절히 보호받고 있는지를 규제하는 총괄기구임

o (AEPD) 스페인 정보보호청(AEPD)은 헌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개인의 기본적인 정보 운영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 EU와 개인정보 관련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하고 있음

※ 정보보호청은 벌금형을 구형하는 등 사법권을 갖는 기관이며 청장 등 주요 간부는 법조계 출신 인사가 대다수임

< 스페인 개인정보보호청 면담 사진 >

- 최근 스페인의 정보보호 관련 현안은 인터넷 해킹, CCTV 등 인터넷 관련 개인정보 침해, 관련 고발 증가 등이며 해당 건수는 연간 약 700여 건 정도임

- 이와 관련한 사법적 집행과 개인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구현 등을 법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잊혀질 권리와 관련하여 유럽 법정에서 승소를 하면서 미국 구글 등의 업체도 이를 통해 게시물 관리를 시정하는 성과를 냄
- 현재 향후 4년 간의 전략 계획 및 관련 103개 세부과제를 수립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보호 대책과 PIN 암호, 시스템 계정 등 여러 가지 전략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있음
- 또한, 유럽 각 국가와 연합하여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공유하고 최근 이슈들을 법제화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빅데이터 및 위치정보산업】

o (방통위) 빅데이터 산업은 경제성장을 위해 진흥해야 한다는 의견과 개인정보 유출 방지가 우선이라는 의견이 공존하여 한국은 양쪽 균형을 적절히 유지하는 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

- 한국은 개인정보 관련 법적규제가 다양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않고서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음

< 유럽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동향 >

o (GDPR 제정) EU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일반정보보호법)은 EU가 회원국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 중인 정보보호법안이며 회원국 간 통합적으로 합의된 지침을 근거로 인터넷 기업들의 개인정보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 특징

-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 위반시 전 세계 매출액의 4% 벌금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시 72시간내 감독기구에 보고 △1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시 부모나 법적 대리인의 동의 요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이용 및 공개 금지 등임

o (EU-美 개인정보보호협정) 유럽연합(EU)과 미국은 '16년 2월 2일(현지시간) 미국 측과 EU 시민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한 '세이프 하버' 협정을 대체하는 새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타결했다고 발표

- (주요내용)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에 명확한 한계를 제시하고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이 같은 규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 포함

o (AEPD) 스페인 역시, 사업자가 빅데이터를 운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법적 규제를 받고 있음. 빅데이터 산업 진흥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효율적 운영 지원과 일반 시민의 개인정보보호 사이에서 정부가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정보보호청은 사업자가 빅데이터 정보를 이용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지원 시스템을 기술 및 사법적 자문을 제공하여 지원주고 있음

- 또한, 정보보호청은 EU 국가별 의무사항인 EU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대한 스페인 정부의 충실한 이행을 증명하는 점검 보고서를 검토해야 함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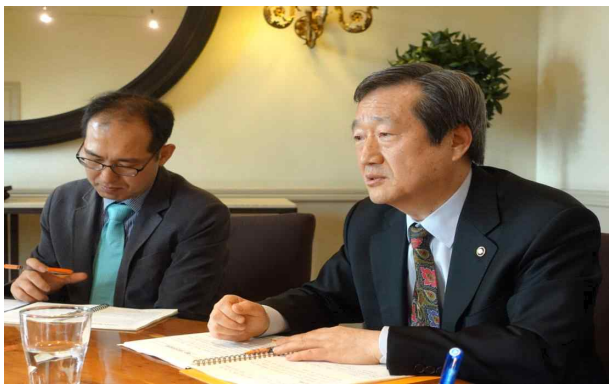
o (방통위) 한국의 통신사업자는 모든 국민에 대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므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할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정부 역시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통해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있음

o (AEPD) 스페인 역시 약 4,000만의 이동통신 가입자가 있어 개인정보보호 정책체계 및 업계 대응은 한국과 유사함

- 위치정보 등에 대한 가이드 및 지침을 통해 관련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보호 의무 준수를 안내하고 있으며, EU 정보보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

- 특히, 페이스북·구글 등을 상대로 EU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관련 규정 준수를 촉구한 바 있음

< 스페인 정보보호청장 면담 사진 >



【잊혀질 권리 관련 정부 간 협력】

o **(방통위) 구글에 승소한 '곤잘레스' 사건은 한국에서도 매우 관심이 많으며 이와 관련한 정책 수립이 진행되고 있음**

< 곤잘레스의 '잊혀질 권리' 사건 개요 >

'10년 곤잘레스는 언론에 보도된 자신의 과거사가 10년이 지난 뒤에도 구글에서 검색되는 것을 확인, 이를 삭제하기 위해 해당 언론사, 구글 스페인, 구글 본사 및 AEPD 등에 순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2014년 EU사법재판소에서 구글에 관련 링크 삭제 명령을 내림

- **동 사건 승소 이후 전체 유럽에서 약 30만 건 이상의 유사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고 약 40% 정도는 이용자측이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음**

o (AEPD)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지역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면 2-3개 국가가 협력하여 조사 및 처리하고 있으며, EU 전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하다면 다수 회원국이 논의하여 해당 유출건에 대해 시정명령 등을 결정함

- 이와 관련, 구글을 상대로 정보 삭제 및 시정명령 요청을 이끌어낸 판결은 EU 전체에 걸쳐 논의 후 결정되었음

【EU 적정성 평가 및 협력 제안】

o **(방통위)** 한국은 EU의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를 위해 한국-EU간 본격적인 제도 교류를 계획 및 준비하고 있으며, 아래 2가지 사항을 제안함

① 빅데이터,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한-스페인 산업 발전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방통위와 정보보호청(AEPD)간 MOU 체결 ② 한국이 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 신청 시 관련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지만 그 과정에서 스페인의 협조를 부탁

o (AEPD) 방통위의 MoU 및 EU 적정성 평가 관련 제안 등에 감사드리며, 본 기관도 적극적으로 협조 및 지지하겠음

- 특히, 적성성 평가는 EU 위원회의 결정사항이나 평가 및 준비 단계에서 본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적극 지원하겠음

MWC 2016 참관

1 개 요

□ 현 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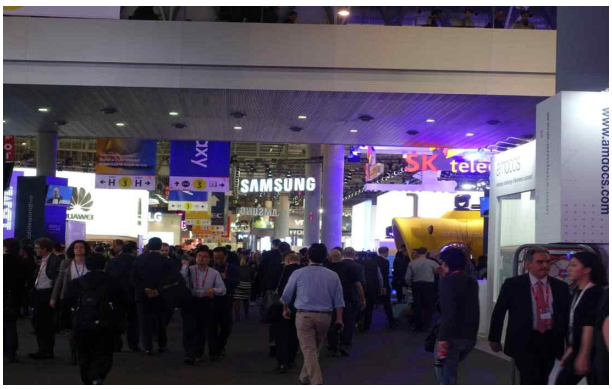
o GSMA*가 주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이동통신산업 전시회로서 '87년 스페인의 바로셀로나에서 연합회 명칭을 딴 'GSM 월드 콩그레스(GSM World Congress)'로 시작

* GSMA(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Association,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

- 이동통신 분야의 다양한 최첨단 기술이 소개되고 각 분야의 미래 기술 발전을 가장 빨리 접할 수 있는 전시회이며, '16년에는 204개국 총 101,000여 명이 참관

< MWC 개요 >

주 요 품 목	모바일 생태계 관련 전 분야
일정 및 장소	'16.2.22(월)~2.25(목), Fira Gran Via(스페인 바르셀로나)
최 초 개 관	1987년
행 사 주 최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 (GSMA, Group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Association)
경 제 효 과	- 현지경제 : 4억 3,600만 유로(약 5,280억원) - 일자리 창출 : 1만 2,675개 파트타임



□ 주요 시사점

MWC 2016 키워드 : 5G, VR, IOT

o **(5G 기반기술)** 주요 통신 업체의 5G 상용화 경쟁 본격 시작, 단순한 기술 소개 단계를 넘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제시한 8가지 5G 관련 요구사항 중 하나인 20Gbps 이상의 속도가 시연됨

※ KT는 오는 '20년에 국내에 5G를 상용화할 예정이며,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밝힘

- 노키아는 5G 통신기술을 적용한 차량 충돌방지 기능을 시연함

※ 평창 동계올림픽('18), 도쿄올림픽('20), 베이징 동계올림픽('22) 등에 5G 시범 도입 예정

- 민관·국제협력 등을 통해 표준화 선점 전략을 마련하여 '18년 평창 올림픽을 기점으로 한국이 5G 주도권을 가져야 할 것임

o **(VR, 가상현실)** 전 산업 분야에서 IoT가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다양한 전시가 이루어짐

- 삼성전자는 갤럭시 S7을 공개하는 전시장에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VR 헤드셋인 '기어 VR' 5,000대를 동원하였고,

-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갤럭시 S7 발표회에 등장하여 '차세대 플랫폼은 VR'이라며 강조

※ 삼성전자 VR 카메라 '기어360', LG 전자의 VR 헤드셋 'LG VR'과 360도 카메라 'LG 360캠'을 선보였고, KT는 MWC 행사 주최측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가 마련한 이노베이션센터 내 부스에서 스키점프 체험 영상을 360도 동영상으로 제공

- 모바일 VR 기술은 한국이 주도 중으로 선도적인 정책적 지원 필요

o **(IoT, 사물인터넷)** VR 기기·콘텐츠 중심의 새로운 5G 생태계 형성, 실생활에 바로 적용 가능한 다양한 제품군들이 전시됨

- ’15년 MWC 전시장을 도배한 자동차가 사라지고 자전거가 자동차를 대체한 IoT 상용 제품으로 등장함
- 가전제품의 네트워크화를 이뤄낸 ‘스마트홈’, 활동량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유니폼’ 등이 소개됨
- IoT 확산으로 ICT와 타분야의 융합이 가속화될 경우 예상되는 잠재적인 보안 이슈에 대해 선도적인 대응 필요

o **(단말기)** 삼성 갤럭시 S7, LG G5, 샤오미 Mi5, HP 엘리트 X3, 소니 엑스페리아 X, 화웨이 P9 등이 선보임

- 스마트 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 전시는 축소되고 VR·IOT와 연결되는 디바이스 전시에 중점

< MWC 주요 사진 >

2 주요 참관내용

□ 일시 /장소 : ‘16. 2.23(화) 09:00~19:00, Fira Gran Via

□ 주요내용

o 국내·외 인터넷, 모바일 콘텐츠 등 이동통신 분야의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외 관계자와 면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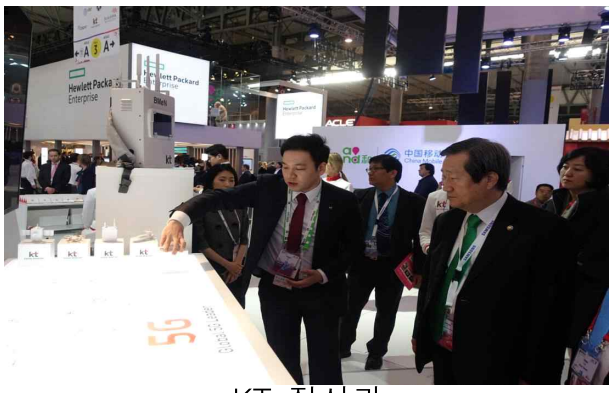
- (국내) KOTRA 중소기업관, NIPA 기업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관, 삼성전자, 엘지전자, SKT, KT 등
- (해외) 차이나모바일, Qualcomm, Ericsson, Huawei 등

< 참관 전시관 주요내용 >

참관 기업	제품 및 기술 내용
KOTRA 중소기업관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 트렌드와 기술 시연
KT	차세대 5G 기지국 핵심 기술 FTTA 공개 ‘360도 VR’ 라이브 스트리밍 등 고화질 실감형 미디어 서비스 공개
엘지전자	전략 스마트폰 ‘G5’ 소개 및 기술시연
삼성전자	‘갤럭시 S7’, ‘S7엣지’ 스마트폰 소개
SK텔레콤	3대 플랫폼 전략 중심의 서비스 소개(생활가치, 미디어, IOT)
차이나모바일	5G 소개 - KT, 소프트뱅크 등과 손잡고 VR 및 AR, IoT 등 5G 기반 서비스를 조기에 상용화
중소기업진흥공단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 트렌드와 기술 시연
Huawei	스마트폰 ′메이트8′과 ′P8′, ‘P9’ 등 7개의 스마트폰, 노트북과 태블릿을 결합한 ‘메이트북’ 기능 시연
Errcson	텔레햅틱 컨트롤(Telehaptic control) 기술 시연 - 무선으로 헬리콥터를 원격 조종 시, 움직임을 조종사가 시각·청각 감각을 통해 느낄 수 있게 비디오 및 오디오 피드백을 받게 하는 기술
Qualcomm	IoT 기술 기반 ‘스마트시티‘ 커넥티드 카 구현 기술 소개 - 스마트폰과 연결해 운전자의 상태를 체크하고 얼굴 인식 기능을 통해 소리나 진동을 사용하여 주의와 경고를 보내는 기술

< MWC 참관 주요 사진 >

KOTRA 중소기업관



KT 전시관

LG전자 전시관

삼성전자 전시관

SK텔레콤 전시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전시관

퀄컴 전시관

화웨이 전시관

3 현지 언론 인터뷰

□ 일시 /장소 : ‘16. 2.23(화) 10:00, KT 전시관

□ 주요내용

o MWC 2016을 참관한 김재홍 부위원장은 23일(화) MWC 전시관에서 국내 언론(KBS, SBS, YTN, 디지털타임즈, 헤럴드경제 등)과 인터뷰 실시

-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5G 이동통신 서비스의 빠른 상용화를 위해서는 한국 이동통신 업계가 중국 기업과 제휴해야 할 것”이며,

- 특히, “2020년 국제 표준화 보다는 업계 표준화를 통해 2018년 평창 올림픽때 5G 서비스를 실시하여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

o 또한, “세계이동통신가입자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동아시아, 그 중에서 한국에서도 MWC와 같은 세계적인 이동통신 이벤트를 서울에서도 개최해야 한다”고 설명

< MWC 현지 인터뷰 >

4 중국 화웨이 면담

□ 일시 /장소 : ‘16. 2.23(화) 15:50~16:30, 화웨이 전시관내 회의실

□ 참석자 : 방통위 대표단, David Harmon 부사장, 김학수 부사장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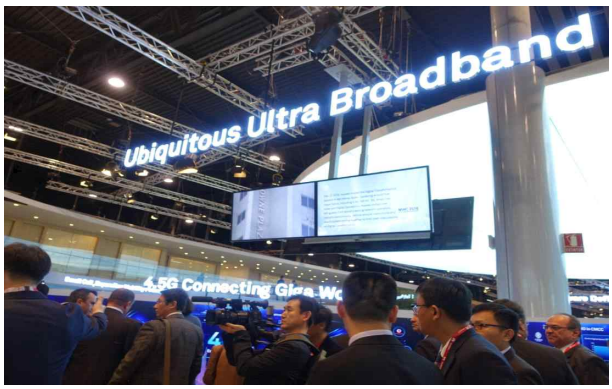
< 화웨이 최근 동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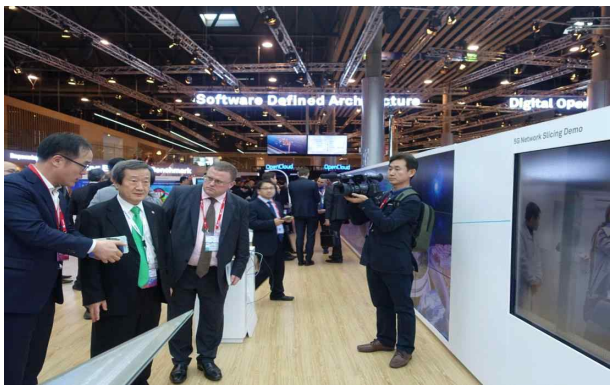
o ’16년 2월 17일자 발표에 따르면 화웨이는 영상산업 시장의 잠재력이 1천억 달러에 달하고, 기업 클라우드 시장의 잠재력이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

- 사물 인터넷(IoT) 연결 수는 10배 증가하고 통신사들은 전례 없는 기회를 접하게 될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화웨이는 Big Initiatives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자 하며, 다섯 가지 Big Initiatives 프로젝트는 Big Video - Everywhere, Big IT - Enabling, Big Operation - Agile, Big Architecture - Elastic, Big Pipe - Ubiquitous임

o 화웨이는 MWC 2016에서 12인치 태블릿 PC인 메이트북을 공개하여 주목

- 또한, 70Gbps 속도의 세계 최고수준 5G 기술을 성공했다고 공개하면서 국내 LG 유플러스와의 협력 계획을 밝힘
- 화웨이는 MWC 2016를 통해 통신망, 스마트폰, 사물인터넷 등 모든 분야에서 기술력과 제품을 선보이면서 삼성, 에릭슨 등과 같이 MWC 핵심기업으로 부상





0 주요내용 요약

- 세계 이동통신 기술 및 서비스 발전을 위해 한·중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5G의 국제 표준화 이전에 업계 표준화를 이루어 5G ’18년 조기 상용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

□ 세부 면담내용

【화웨이의 기술발전 현황】

o **(방통위)** MWC '16 중 중국 화웨이의 각종 기술시연 및 신제품 전시가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그 성장력에 매우 놀라움

o **(화웨이)** 통신장비 및 소비자 제품 등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중임

【5G 기술개발 관련 협력】

o **(방통위)** 5G 기술 실용화를 위한 표준화는 '20년 국제 표준제정 보다는 업계 표준화가 시급하며, 특히 한국은 세계 유력업체들과의 제휴, 그 중에서 중국기업과의 파트너쉽이 매우 중요

o **(화웨이)** 업계 표준화 과정에서 한-중 기업들간 제휴는 '상호 윈-윈' 하는 전략이며, 화웨이도 5G에 대규모 연구개발비를 투자한 만큼 한국측의 '18년 조기 상용화에 100% 동의함. 한국 방통위 부위원장님의 제안 내용을 화웨이 수뇌부에 전달하겠음

<중국 화웨이 면담 사진>

o **(방통위)** 동아시아가 세계 이동통신 기술 및 시장을 선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결정은 서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 모바일 산업 발전을 위해 한중일 동맹체제 구축이 매우 중요

- MWC 전시회가 작년부터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등 동아시아가 업계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임.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18년 평창동계올림픽, '20년 동경올림픽 등을 통해 모바일 기술을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음

5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면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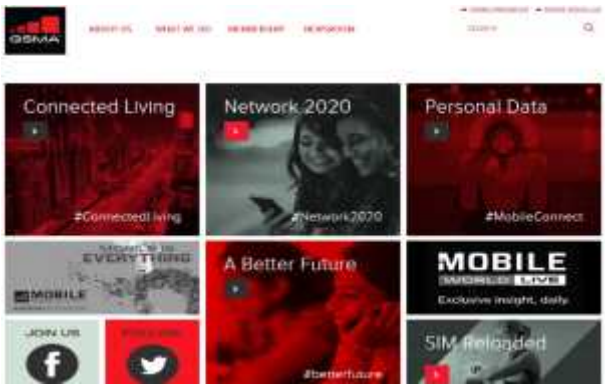
□ 일시 /장소 : ‘16. 2.23(화) 19:00~21:00, Fira Gran Via 인근

□ 참석자 : 방통위 대표단, 양현미 GSMA 최고전략책임자(CSO), 김태경 GSMA 동북아 대표 등

< GSMA 개요 >

o 개요
- 750개 이동통신 사업자를 대표한 25개 회원사 CEO급 대표로 구성
- 이사진 : 한국(SKT, KT), 미국(AT&T), 러시아(Vimpelcom), 영국(Vodafone), 중국(China Mobile), 스페인(Telefonica), 독일(T-mobile) 등

o 권한
- GSMA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이동통신 관련 핵심 의사결정사항(기술표준, 신규사업, 서비스 프로젝트), 협회 운영(예산, 차기 보드멤버 선임 등) 관련 승인, 관리
- 약 26억 명(세계이동통신가입자의 69%), 연 650조 원 규모(세계이동통신산업 매출의 약 90%)시장을 대표하여 전략, 투자, 기술 표준화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서 영향력 행사
- 세계 Top20 글로벌 통신그룹의 70%에 대한 가치혁신, 대규모 투자, 구매를 주도하고 이동통신 업계 핵심의견 제시



□ 세부 면담내용

o 한국 업체들이 추진하는 5G 국제 표준화 이전의 업계 표준화와 세계적 이동통신 이벤트의 서울 개최 필요성, 기술동향 등을 논의

※ GSMA는 ’18년 이전에 5G 업계 표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2018년 평창 올림픽에서의 5G 시연에 맞추어 GSMA의 전체 이사회를 평창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힘

체코 통신위원회(CTU) 방문 및 MoU 체결

□ 일시 /장소 : ‘16. 2.25(목) 10:00~13:00, CTU 회의실

□ 참석자 : 방통위 대표단, 야로미르 노박(Jaromir Novak) CTU 위원장 등

< 체코 통신위원회(CTU) 개요 >

o 구성

- 체코 전기 방송통신법에 따라 ‘05년에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5명의 위원(위원장 1인)으로 구성(5년 임기)

o 주요 기능

- 전기 방송통신 분야 관련 ▲이용자 보호, ▲보편적 서비스 제공자 결정, ▲가격 결정 및 가격 통제, ▲무선 주파수 관리 등

o 방송통신분야 주요 업무

- 통신사업권 인허가, 주파수 관리 등 일반적인 통신관련 분야 관할
- 통신시장을 분석을 통한 시장장악 사업자 제재 및 관리
- 보편적 서비스 제공자 식별, 방송심의, 망이용료 관련 조항 운영
- 통신분야 관련 가격 정책 결정 및 시행
- 방송 규제 등 관련 법 운영에 따른 분쟁 조정
- 라디오 주파수 관련 행정적 운영 및 방해주파수 조사 등

o 주요내용 요약

- 한국 방송통신위원회와 체코 통신위원회 간 방송통신 분야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양국 개인정보보호 등 방송통신 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
- 특히, 한국의 EU 적정성 평가 신청시 체코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 등 협력 방안 논의
- 또한, 체코의 광케이블망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 전문업체 참여 등을 논의하고 이 외의 협력 방안 제안

□ 세부 면담내용

【양 기관 간 MoU체결】

o **(방통위)** '15년 한-체코 정상회담 이후 ICT ·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MOU가 체결되는 등 양국 관계가 진전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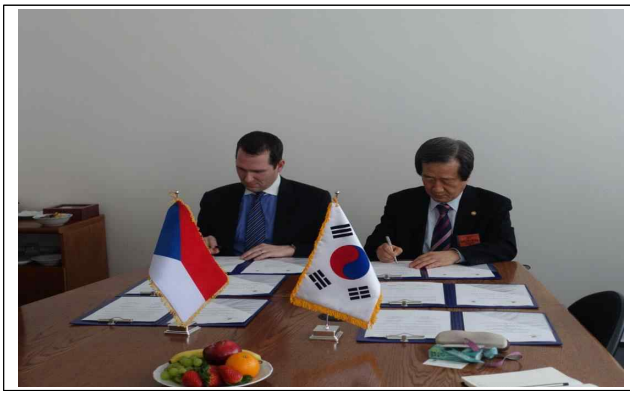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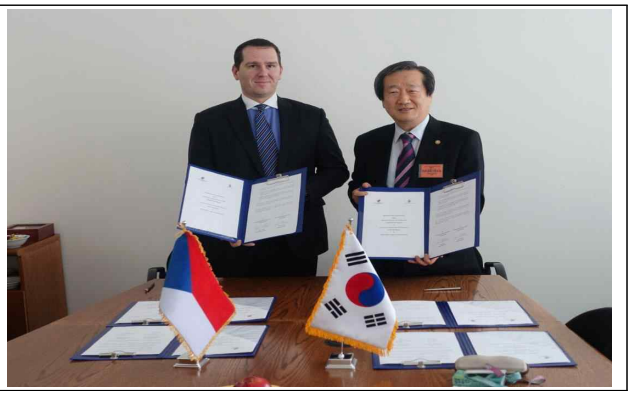
- 오늘 MOU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방송통신 분야의 정책, 기술, 인력 개발 등에서 긴밀히 협조하여 작년에 체결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기폭제가 되기를 희망함

< 참고 : 방통위-CTU 방송통신 MOU 개요 >

o 형　　식 : 목적, 협력 범위 등 총 2개 항으로 구성
o 주요내용
- (목적) 한-체코 간 방송통신 분야의 협력을 촉진
- (협력범위) ① 정책 실무 협의체 운영, 공무원 및 전문가 교류, ② 고품질 방송통신 서비스 개발 협력, ③ 방송 분야 사업자 간 인력 개발 등 협력 촉진, ④ 공동회의, 세미나, 연구회 및 토론회 등을 위한 공무원·전문가 제공 등

- 또한, 동아시아와 중유럽에서 발전된 방송통신 인프라와 기술력을 보유한 양국이 폭넓게 협력해 나간다면 방송통신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한-체코 MOU 체결 사진 >

- 향후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향후에 양 기관 간 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체코 방송통신 주요현황】

o (CTU) 체코 통신위원회(CTU)는 수도 체코에 본부를 두고 7개 지역기관 등 총 63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통신사업자 인허가, 방송 주파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

※ 총 5명의 위원과 행정, 규제 등 3개의 조직으로 구성

- 체코 인구는 약 1,050만 명, 410만 가구이며 모바일 보급률은 약 130% 정도이며, 4개의 이동통신 사업자(텔레포니카, T-Mobile, Vodafone, Air Telecom)가 있음(LTE 보급률은 약 85% 수준)

< 한-체코 방송통신 협력 사진 >

o **(방통위) 체코의 모바일 이용과 기술수준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여겨지며, 한국 역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삼성·LG 등 제조업체와 SKT·KT 등 통신 사업자가 있어 MoU 이후 후속 실천사항으로 양국 모바일 사업자 간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음**

【브로드밴드 망구축 관련 협력】

o (CTU) 체코는 현재 광케이블망 보급률이 낮아 정부차원의 대규모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정부차원의 지원금 정책도 추진. 이동통신 사업에 있어 외국기업의 투자 또한 허용하고 있는 상황

o **(방통위)** 모바일 기술 전반에 대해서 양국 간 협력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좋을 것이며, 특히 체코의 광케이블 공사에 한국의 역량있는 업체가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드림

-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광케이블망에 가입한 9개국 13개 업체들로부터 중앙통제센터 관리운용자로 지정받을 만큼 이 분야에 전문성과 역량을 인정받고 있어 한국의 전문업체의 참여가 바람직할 것임

※ 체코의 노박 위원장은 "한국의 역량있는 업체들을 알고 있다"면서 "향후 깊이있는 협의가 필요함"을 언급

【개인정보보호 분야 협력】

o **(방통위)** 한국은 국내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국제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적 측면에서 개인정보체계를 강화해옴

- 한국은 방송통신 분야에서 글로벌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o (CTU) 체코의 경우, 개인정보가 타 국가로 유출된 적은 없으나 국내에서 온라인 회원가입 과정시 정보유출 사례가 있었음

- 체코 역시 개인정보보호관련 법규를 강화하고 있고 EU 차원에서도 관련법 개정 및 규제 강화 등에 논의를 하고 있음

< 한-체코 방송통신 협력 사진 >

【EU 적정성 평가 관련 협력】

o **(방통위) 한국은 EU의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 진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한국이 본격적인 관련 절차를 추진할 경우 원활히 진행되도록 CTU 측의 협조를 부탁드림**

o (CTU) CTU는 개인정보보호청*과 협력하여 한국의 EU 적정성 평가를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음

< 체코 개인정보보호청(UOOU) 개요 >

o 개인정보 처리 관련 법률상의 의무 준수 여부 감독, 정보 처리 작업 등록 관리, 법률 위반 관련 시민사회 의견 및 요청사항 처리, 개인정보보호 관련 컨설팅 제공 등을 담당하는 독립기구, 개인정보보호법('00.4.4)에 근거하여 설립('00.6.1)

o 주요업무
- 개인정보 처리 관련 법 준수 여부 감독, 개인정보 처리 기록 관리
- 위법 시 보상안(incentives) 및 항의 수락, 합의 경과 통지
- 진행 활동에 대한 연차보고서 작성 및 공개
-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기타 권한 행사
- 법규에 따른 경범죄 및 기타 행정의무위반에 대한 벌금 부과
-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상담(consultation) 제공
- 해외 유관기관, EU기구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 국제기구와 협력

체코 TV Nova 방문

□ 일시 /장소 : ‘16. 2.25(목) 15:00~16:00, TV Nova 회의실

□ 참석자 : 방통위 대표단, 알란 자루바(Alan Zaruba) 본부장 등

< TV Nova 개요 >

o ’94년 2월에 설립된 체코의 상업 텔레비전 방송국으로서 체코 전역을 대상으로 방송을 개시한 최초의 민영 방송사

- 빠른 시간 내에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게 되었고, 현재 업계 1위
- CME 그룹이 TV Nova를 소유하며 Nova Cinema, Nova Sport 1, Nova Sport 2, TV Fanda, TV Telka 등 채널 보유
- ’08년 10월 이후, 위성과 케이블을 통해 HD로 방송

o 주요내용 요약

- 체코 방송산업 동향, 지상파방송 운영 현황 및 한류 콘텐츠 교류 방안 등에 대해 논의
- 특히, TV Nova의 한국 드라마 ‘프라하의 연인(SBS)’ 방송 현황 및 시청자 반응, 체코 내 한국 드라마·영화 현지 촬영 현황 등 양국 간 방송 콘텐츠 교류 협력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

□ 세부 면담내용

【TV Nova 현황】

o (TV Nova) TV Nova는 4개 지상파(Nova cinema, Fanda, Smichov, Telka), 3개 케이블(Sport 1·2, Nova International), 4개 온라인(Plus, Voyo, TN CZ, Nova.CZ) 채널 등 총 11개 채널을 운영

※ 약 1,000만 시청자 중 900만 시청자가 지역 시청자로 이루어짐

- 민영방송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우며, 객관적이고 균형잡힌 보도로 체코 시청률 1위 방송사로 자리매김함

<TV Nova 면담 사진>

【주요 방송규제】

o (TV Nova) 방송 관련 법률에 위반되는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규제를 받고 있지만 그 건수는 매우 적음

- CT(체코 텔레비전)와 같은 공영방송은 정부로부터의 재정적 지원도 있고 시청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부 정치적 편중이 있을 수 있지만, TV Nova는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균형있게 운영되고 있음

【방송 콘텐츠 분야 협력】

o (TV Nova) ’15년 7월 5일부터 8월 5일까지 18회에 걸쳐 한국 드라마 ‘프라하의 연인(SBS)’을 방영한 바 있음

- 한국의 드라마·영화에서 체코 현지 촬영이 많이 있다는 것은 양국 간 문화적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양국 방송 업계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길 희망함

※ 영화 설국열차, 명량 사운드트랙, 국제시장, 뷰티 인사이드 등이 체코에서 제작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시사점

o (MWC 2016) 금년 MWC의 화두는 5G, VR, IOT 등으로 향후 모바일 생태계의 주요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

- 특히, 전세계 사업자들이 5G에 대한 신기술 개발 및 서비스 상용화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경쟁

- 5G의 국제표준화 시점이 '20년으로 예정되어 있지만 한국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중국 등 해외기업과 협력하여 업계 표준화를 도모하고 '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시 조기 상용화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전세계 모바일 시장을 한국을 포함하여 동아시아가 주도하고 있는 만큼 MWC와 같은 세계적인 이동통신 이벤트를 국내에 유치하여 모바일 기술 선점 및 국가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o (개인정보보호) EU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다루기 위해 별도의 행정기관을 설립할 정도로 관심이 높은 편이며,

- 동 출장을 통해 국내 기업의 유럽 진출 등을 위한 한국의 EU 적정성 평가 지원 협력을 약속을 받아냄으로써 국내 개인정보보호 산업 발전의 계기를 마련함

o (한류 콘텐츠) 스페인, 체코 등에 한류 방송 콘텐츠의 진출은 미비하지만 작년 박근혜 대통령이 체코에 방문하여 V4(비세그라드그룹, 체코·폴란드·헝가리·슬로바키아) 정상과 면담한 후 각 분야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어 본격적인 한류 방송 콘텐츠 교류 정책이 필요할 것임

특이사항

□ 국내방송 송출 현황

o 출장기간('16.2.21~2.26) 중 국내 방송 프로그램의 스페인, 체코 현지 송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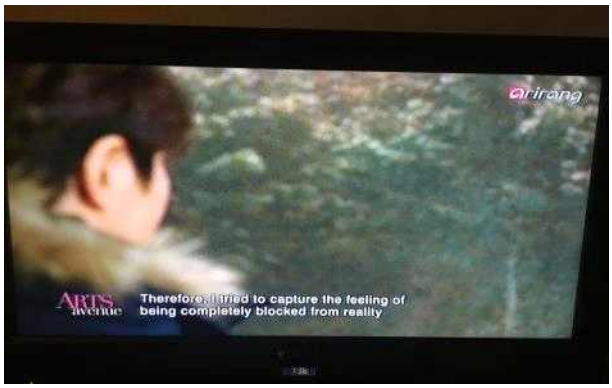
- 호텔에 설치된 위성안테나를 통해 해외 주요국가 채널과 함께 아리랑TV (국제방송교류재단)와 CGN TV(기독교선교)가 송출

<스페인 송출 현황>

아리랑TV

CGN TV

<체코 송출 현황>



아리랑TV

CGN TV

※ 체코의 경우, 확인 당시 CGN TV는 정파시간으로 방송은 미송출

□ 선물수령 관련

o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o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Ⅳ. 첨부자료

출장 동정 보도자료(2.21)

2016. 2. 21.(일)

방송통신위원회	보 도 자 료 2016년 2월 21일(일)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문의 : 홍보협력담당관 국제협력팀 전혜선 팀장(☎2110-1331)
국제협력팀 장좌영 주무관(☎2110-1332)

방통위 김재홍 부위원장, 국제 이동통신 분야 최신 동향 파악 및 스페인 · 체코 방송통신 협력 강화 나서

방송통신위원회 김재홍 부위원장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 국제전시회인 MWC '16(Mobile World Congress 2016, 2.22~2.25)에 참가하기 위해 21일 출국한다.

이번 방문기간 동안 김 부위원장은 먼저 스페인 정보보호청(AEPD)을 방문하여 양국 간 개인정보보호, 빅데이터 및 위치정보산업 육성 등의 정책 현안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MWC 전시 기간 중 국내외 기업 전시관을 찾아 신제품 동향 파악 및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GSMA(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Association,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 임원진과의 간담회에서 통신 분야의 최신 동향 및 국제적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전시회 참관 후 체코로 이동해 체코 통신위원회(CTU)와의 방송통신 분야 정책·기술·인력 개발 등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끝.

MWC 참관 보도자료(2.24)

2016. 2. 24.(수)

방송통신위원회	보 도 자 료 2016년 2월 24일(수)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문의 : 홍보협력담당관 국제협력팀 전혜선 팀장(☎2110-1331)
국제협력팀 장좌영 주무관(☎2110-1332)

방통위 김재홍 부위원장, 바르셀로나 MWC '16 참관 및 이동통신 분야의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 논의

- 2018 평창올림픽 때 5G 이동통신 서비스 실현 가능성 높아져 -

- 김 부위원장, GSMA 고위임원 만나 최선의 지원책 약속받아 -

- 중국 화웨이 부사장에게 5G 업계 표준화 및 2018년 상용화 위해 한국 업체와의 파트너십 제안 -

한국 이동통신 업계가 추진하고 있는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이하 "5G")의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상용화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5G는 국제표준화 시점이 2020년으로 잡혀있어 평창 올림픽 때 상용화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바르셀로나 MWC '16(Mobile World Congress 2016)에 참가 중인 방송통신위원회 김재홍 부위원장은 23일 현지활동을 결산하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5G 업계 표준화 위해 해외의 유력업체들과 제휴 필요

김 부위원장은 이날 케이티, 에스케이텔레콤, 삼성전자 전시장을 각각 순회 방문, “5G의 국제표준화 시점이 2020년으로 정해졌으나 그 이전에 업계표준화를 통해 조기에 상용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일치가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러나 업계 표준화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관련 내용 및 절차에 대해 한국 기업들 간에만 합의해서는 곤란하며 다른 나라의 유력 업체들과 제휴해야 한다"면서 "한국 이동통신 업계가 그런 파트너십과 동반성장을 추진할 수 있는 상대는 중국 기업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중국 최대의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화웨이의 데이비드 하먼 국제협력 부사장과 면담한 후 "하먼 부사장이 업계 표준화 과정에서 한-중 기업들 간 제휴는 그야말로 ‘윈-윈’이라고 환영했다"고 밝혔다. 하먼 부사장은 김 부위원장에게 "화웨이도 5G에 대규모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해 왔다"며 "양국 업체들이 제휴하여 5G의 업계 표준화와 2018년 조기 상용화를 달성하자는 김 부위원장의 제안을 화웨이 지도부에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MWC와 같은 세계적인 이동통신 이벤트를 서울에서도 개최해야

김 부위원장은 이어 MWC의 주관기구인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이하 “GSMA”) 고위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한국 업체들이 추진하는 5G 국제 표준화 이전의 업계 표준화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MWC와 같은 세계적인 이동통신 이벤트를 서울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GSMA 내부에서 논의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GSMA의 아시아계 유일 고위임원인 양현미 최고전략기획책임자(CSO)는 "한국 이동통신 업계가 추진하는 5G의 업계표준화와 상용화가 2018년 이전에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2018년 평창 올림픽에서의 5G 시연에 맞추어 GSMA의 전체 이사회를 평창에서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5G가 상용화되면 4G에 비해 전송속도 20배, 반응속도 10배, 데이터 처리용량 100배, 배터리 효율성 100배가 각각 향상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3월 5G의 세부 청사진이 포함된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16~17년 5G 핵심 시범 서비스를 실현하고 2018~20년 세계 최초 5G 상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끝.

스페인 · 체코 정부 간 협력 보도자료(2.25)

2016. 2. 26.(금)

방송통신위원회	보 도 자 료 2016년 2월 26일(금)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문의 : 홍보협력담당관 국제협력팀 전혜선 팀장(☎2110-1331)
국제협력팀 장좌영 주무관(☎2110-1332)

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평가에 스페인과 체코의 지원협력 약속받아

-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 양국 정부기구 순방 요청 체코 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 협력 위한 MOU 체결 -

방송통신위원회 김재홍 부위원장은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세계대회(MWC) 참가 중 스페인 정보보호청과 체코 통신위원회를 순회방문, 한국이 유럽연합(이하 “EU”)의 개인정보보호 적정성평가를 신청할 경우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김 부위원장은 "22일 오전 스페인 정보보호청을 방문, 마르 에스빠냐 마르띠 청장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EU적정성평가 지원협력에 관해 흔쾌히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25일 프라하로 이동해 체코 통신위원회의 야로미르 노박 위원장과 면담, EU 적정성평가에 대한 협력 약속을 받았다.

그는 "체코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청이 전반적인 정보보호를 맡고 있으며 통신위원회는 온라인 상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 그 보호청과 정책협력 기관이다"라고 설명하고 "노박 위원장이 정보보호청과 협의해서 한국의 적정성평가를 돕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 방송통신위원회와 체코 통신위원회 간의 방송통신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체코 광케이블망 보급율 낮아 확장공사에 정부지원 검토중, 김 부위원장, "한국의 역량있는 업체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

이 자리에서 체코 통신위원회의 노박 위원장은 "체코는 지금 광케이블망의 보급율이 낮아 확장 설치공사를 위해 정부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재홍 부위원장은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광케이블망에 가입한 9개국 13개 업체들로부터 중앙통제센터 관리운용자로 지정받을 만큼 이 분야에 전문성과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하고 "체코의 광케이블망 공사에 한국의 전문업체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체코의 노박 위원장은 "한국의 역량있는 업체들을 알고 있다"면서 향후 깊이있는 협의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체코 이통사업에 외국기업의 지분투자 열려있어"

노박 위원장은 또 "체코는 이동통신 사업에 대해 외국 기업의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다만 지분 점유율이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검증해 갈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한국의 모바일 업체들에게 체코의 투자 환경과 여건에 대해 소개하겠다”고 답했다. 끝.

주요 언론보도 현황

전자신문
2016년 02월 22일 월요일
025면 인물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 MWC서 최신 동향 파악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이 MWC 2016에서 이동통신 최신 동향을 파악한다. 스페인·체코와 방송통신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

김 부위원장은 전시 기간 국내외 기업 전시관을 찾아 신제품 동향을 파악하고 관계자를 격려한다.

GSMA 임원진과 간담회에선 통신 분야 최신 동향, 국제적 민관 협력 방안을 의논할 예정이다. 이어 스페인 정보보호국(AEPD)을 방문, 개인정보보호, 빅데이터, 위치정보산업 육성 등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김 부위원장은 전시회 참관 이후 체코에서 통신위원회(CTU)와 방송통신 분야 정책·기술·인력 개발 등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할 예정이다.

매일경제

2016년 02월 25일 목요일
A33면 사람과사람

김재홍 방통위부위원장 "韓·中, 5G 표준화 협력하자"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왼쪽)은 23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로셀로나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행사장에서 데이비드 하먼 중국 화웨이 국제협력 부사장을 만나 이동통신 분야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양국 업체들이 제휴해 5G 표준화와 2018년 조기 상용화를 달성하자"고 제안했다. (사진 제공=방송통신위원회)

경향신문

2016년 02월 25일 목요일
021면 경제 기획

"정부도 표준화 위해 도울 것" 방송통신위원회 김재홍 부위원장이 23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나 그란비아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16(MWC 2016)' 내 SK텔레콤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경향신문

2016년 02월 25일 목요일
021면 경제 기획

"5G 이통서비스 한국이 주도해야"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 방문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 있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6'에 참석해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의 빠른 상용화를 위해 한국 이동통신 업계는 중국 기업과 제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23일(현지시간) 스페인 현지에서 KT, SK텔레콤, 삼성전자 전시장을 방문하고 "5G의 국제표준화 시점이 2020년으로 정해졌으나 그 이전에 업계 표준화를 통해 조기에 상용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일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그러나 업계 표준화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관련 내용 및 절차에 대해 한국 기업들 간에만 합의해서는 곤란하며 다른 나라의 유력 업체들과 제휴해야 한다"면서 "한국 이동통신 업계가 그런 파트너십과 동반성장을 추진할 수 있는 상대는 중국 기업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최대의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화웨이의 데이비드 하먼 국제협력 부사장과 면담한 후 "하먼 부사장이 업계 표준화 과정에서 한·중 기업들 간 제휴는 그야말로 '윈윈'이라며 환영했다"고 밝혔다. 하먼 부사장은 김 부위원장에게 "화웨이도 5G에 대규모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해 왔다"며 "양국 업체들이 제휴해 5G의 업계 표준화와 2018년 조기 상용화를 달성하자는 김 부위원장의 제안을 화웨이 지도부에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2016~2017년 5G 핵심 시범서비스를 실현, 2018~2020년 상용서비스 목표로 하고 있다. 이윤주 기자 runyj@kyunghyang.com

디지털타임스

2016년 02월 25일 목요일 013면 종합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 화웨이 부사장과 비공식 만남

중국 중저가폰 국내도입 확대 논의한 듯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 세계 3위 스마트폰 제조사인 중국 화웨이 부사장과 비공식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한국 소비자들을 위해 중국 중저가 스마트폰 도입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화웨이가 앞으로 국내에 중국산 스마트폰 판매를 확산시킬지 주목된다.

23일(현지시간) 김 부위원장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 있는 MWC 화웨이 전시관을 방문했다. 전시된 화웨이의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의 기기를 둘러본 후 데이비드 하먼 화웨이 부사장과 비공개 만남을 가졌다. 국내 통신 관련 정부 인사가 국제 행사에서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를 만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번 만남은 화웨이 측이 먼저 요구해 성사됐다. 표면적 이유는 2018년 평창올림픽에 대비해 5세대(G) 이동통신 표준화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중국 중저가 스마트폰을 국내 시장에 확대 도입하는 문제 등을 놓고 진지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위원장은 평소 국내 스마트폰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삼성전자 부스를 방문해 "비싼 가격으로는 중국 제품과 경쟁이 안 된다"며 "기술적으로 앞서가는 건 좋지만, 가격을 싸게 책정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외산 폰의 무덤'이라 불리는 국내 시장은 특히 중국 제품 진입이 쉽지 않은 환경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해외 직접 구매 등을 통해 중국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국내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중국 제조사의 도전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바르셀로나(스페인)=박세정기자 sjpark@

전자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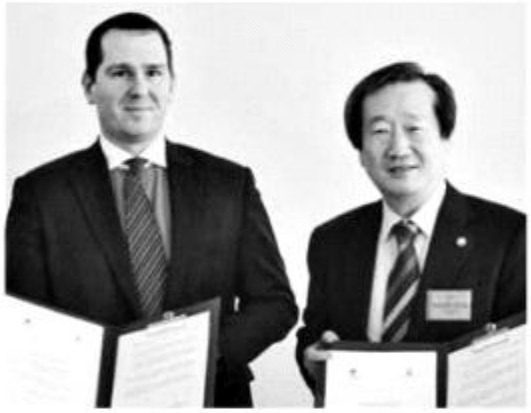
2016년 02월 29일 월요일
025면 인물

방통위, 체코 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 협력

방송통신위원회가 체코 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야로미르 노박 체코 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유무선 통신, 개인정보보호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과 노박 위원장은 체코의 광케이블망 공사에 우리나라 전문업체 참여를 위한 협의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함께 체코 이동통신 사업에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야로미르 노박 체코 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이 우리나라와 체코 간 방송통신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KBS NEWS : 방통위, 체코통신위원회와 MOU 체결

KBS TV | 기사입력 2016-02-26 17:58

체코를 방문 중인 방송통신위원회 김재홍 부위원장은 체코통신위원회 야로미로 노박 위원장과 만나 방송 통신 분야 협력을 위한 양국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체코의 광케이블망 확장 공사와 이동통신 사업 등에 한국 업체들이 참가하는 방안을 노박 위원장과 협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SBS NEWS :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 "5G 표준화 위해 중국과 제휴 필요"

임찬종 기자 입력 : 2016-02-26(SBS)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5G 통신 기술 표준화를 위해 우리 기업들이 중국 업체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에서 중국 화웨이 임원들과 만나 5G 업계 표준화를 위해 한국과 중국 기업들이 제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부위원장은 MWC 주최기구인 임원들과 만나 MWC 같은 세계적 모바일 관련 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YTN NEWS :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 "5세대 표준화 위해 중국 업체와 협력해야

Posted : 2016-02-24 01:20 (YTN)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5세대 이동통신 표준화를 위해 중국 업체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 박람회, MWC를 방문한 김 부위원장은 5G는 2020년 상용화될 예정이지만, 우리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때 먼저 선보여야 해 업계 표준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중국 화웨이나 차이나모바일 등과 협력해 업계 표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MWC 상하이 개최지를 고정하지 말고 서울과 도쿄도 함께 개최하는 방식으로 동아시아가 MWC를 공유해 시너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중국 화웨이 부스를 방문해 중저가 스마트폰과 5G 표준화 관련 협업이 필요하다며 한국 업체와의 동반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양일혁

■ OBS NEWS : 방통위 "평창올림픽서 5G 서비스 실현..중국과 협력"

기사입력시간 201602.24 20:22 (OBS)

【 앵커멘트 】

꿈의 이동통신 서비스라고 불리는 5G 신기술이 이르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상용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를 위해 중국업체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대희 기자입니다.

【 리포터 】

2년 앞으로 바짝 다가온 2018 평창동계올림픽.

꿈의 신기술로 불리는 5세대 이동통신, 이른바 5G 상용화가 평창올림픽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 박람회, MWC에 참석한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5G 국제표준화 시점을 2018년까지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재홍 부위원장은 "5G는 2020년 상용화될 예정이지만 우리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때 먼저 선보일 계획이며, 업계표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중국 업체들과 긴밀한 협력을 주문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MWC가 바르셀로나와 상하이에서만 열리는데, 서울과 도쿄도 함께 개최함으로써동아시아가 시너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부위원장은 중국 대표단말기 업체인 화웨이 부스를 방문해 중저가 스마트폰과 5G 표준화에 한국 업체와의 협업과 동반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5G가 상용화되면 기존 4G에 비해 전송속도 20배, 데이터 처리용량과 배터리 효율성이 각각 100배씩 향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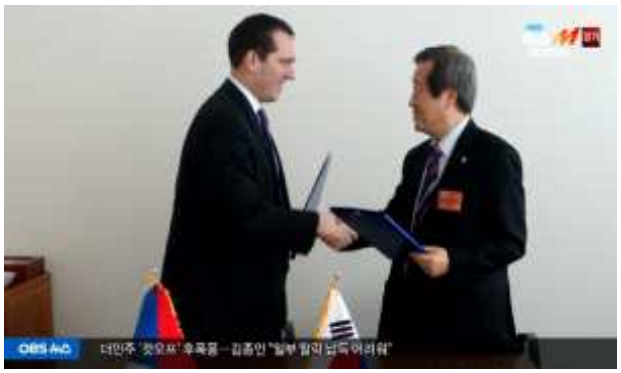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3월, 5G의 세부 청사진이 포함된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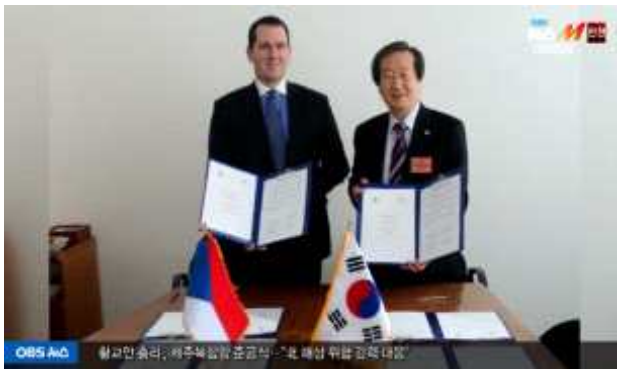
정부 계획은 2017년까지 5G 핵심 시범서비스를 실현하고 2020년까지 세계 최초로 상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OBS뉴스 김대희입니다.

■ OBS NEWS : 국내 데이터센터 산업, 유럽 진출 '청신호'

기사입력시간 2016.02.26 21:24 (OBS)





【 앵커멘트 】

유럽연합, EU는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워낙 높아 국내 데이터 관련기업 해외 진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보호 적정성 평가를 지원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유럽진출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권현 기자입니다.

【 리포터 】

유럽에 진출하는 국내기업들은 EU의 개인정보보호 장벽을 넘기 위해 과도한 비용과 시간을 소모했습니다.

실제로 'EU 개인정보보호수준 적정성 평가'를 승인받지 못한 국내 한 대기업은 관련 비용으로만 40억 원을 쏟아붓기도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는 EU 역외 국가가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지침에서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모바일세계대회, MWC에 참가한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체코 통신위원회를 방문해, 한국이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를 신청할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김재홍 부위원장은 "지원협력에 관해 흔쾌히 약속받았다"며 "야로미로 노박 체코 통신위원장이 정보보호청과 협의해서 한국의 적정성 평가를 돕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평가를 통과하면 복잡한 EU회원국별 감독기구의 규제 문턱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가를 통과한 나라는 캐나다와 스위스 등 11곳 뿐. 한국이 승인을 받을 경우 아시아 최초 국가가 됩니다.

클라우드 등 데이터센터 산업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앞서 방통위와 체코 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지 광케이블망 보급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OBS뉴스 권 현입니다.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1. 여행개요

여행목적	스페인, 체코 방송통신 협력 및 MWC 2016 참석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여행기간	'15.2.21(일)~2.26(금), 4박 6일						
여 행 국	스페인(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체코 (프라하)						
방문기관	스페인 정보보호청(AEPD), 민영방송사 Telecinco, 체코 통신위원회(CTU), TV Nova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연 령	여 행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 6,335 +운임실비	
	방송통신 위원회	부위원장	김재홍	남	67	$ 4,473 +운임실비	기획조정실 (홍보협력 담당관)
	통신시장 조사과	행정사무관	윤웅현	남	49	$ 931 +운임실비	
	운영지원과	비서관 (행정사무관)	김성환	남	45	$ 931 +운임실비	

* 출장 준비 상황에 따라 부위원장을 제외한 수행자 변동 가능

** 한국인터넷진흥원 임준옥 연구원(자료조사 및 일정관리 등 지원), 김지은 통역사(한-영 통역) 동행

2. 여행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2월 21일 (일요일)	서울	마드리드			
2월 22일 (월요일)			AEPD, Telecinco	o 스페인 정보보호청(AEPD) 방문 ※ 면담 : 김재홍 부위원장 자료조사 : 윤웅현 사무관 의전 및 수행 : 김성환 비서관 o 민영방송사 Telecinco 방문 및 면담 ※ 면담 : 김재홍 부위원장 자료조사 : 윤웅현 사무관 의전 및 수행 : 김성환 비서관	AEPD 부청장, Telecinco 부사장 등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2월 23일 (화요일)				o MWC '16 참관 ※ 부스 방문 및 관계자 면담 : 김재홍 부위원장 자료조사 : 윤웅현 사무관 의전 및 수행 : 김성환 비서관	주최측(GSMA) 및 참가기업 관계자
2월 24일 (수요일)	바르셀로나	프라하			
2월 25일 (목요일)			CTU	o CTU 방문 및 MoU서명 ※ 면담 및 MoU서명 : 김재홍 부위원장 자료조사 : 윤웅현 사무관 의전 및 수행 : 김성환 비서관	CTU 부위원장 등
			TV Nova	o TV Nova 방문 및 면담 ※ 면담 : 김재홍 부위원장 자료조사 : 윤웅현 사무관 의전 및 수행 : 김성환 비서관	프로그램 디렉터 등
	프라하				
2월 26일 (금요일)		서울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여행경비

o 별도 붙임

4. 여행효과

o **(정부 간 협력)** 스페인·체코의 방송통신 주무부처를 방문하여 정부 간 정책정보를 공유하고, 민·관 협력 활성화 방안 논의

o **(MWC 참관)** 국제 이동통신 분야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외 참가기업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

5. 외교부 협조

o 방송통신위원회 대표단 영송 및 이동지원

o 방문기관과의 일정 확인 및 조정 등 업무 협조

국외출장 심사시 주요 확인사항

항목	확인사항	예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1. 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V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V
	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V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V	
	2.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방문기관을 방문하였거나 지금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V	
	3.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V	
	4.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V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V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어 있는가?		V
출장시기의 적시성	1.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V	
	2. 국내외 등 국외출장을 삼가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V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포상, 격려가 주된 목적인 국외출장의 경우 출장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	V	
	2. 출장경비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되었는가?	V	
	3.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V	
	4.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체재비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해당사항 없음	